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 성격유형, 및 상담경험이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 영 석[†]

미네소타대학교

안 창 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 성격유형, 및 상담경험이 서로 다른 경험(사고 혹은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총 93명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내담자의 사고 혹은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대본을 읽게 한 후 대본에 나와 있는 상담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상담경험에 따라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상담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내담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상담자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가 참여자들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과거에 상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아시아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가 강할수록 인지적 접근을 사용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낮아지는 반면, 내담자의 감정표현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참여자들이 특정 상담문제를 다룬 모의상담사례를 읽고 그 속에 나타난 상담자를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상담문제를 다루는 실제 상담장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가치와 감정표현에 관련된 기존의 상담이론들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주요어 : 문화가치, 상담경험, 정서표현

서영석은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근무하고 있고, 안창일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서 영 석,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심리학과

E-mail : seox0004@umn.edu

“정서적 정보(affective information)의 경험과 표현”(Greenberg & Safran, 1987, p. vii)으로 정의되는 인간의 정서(emotion)는 상담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theoretical orientation)에 따라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감정 및 그와 관련된 심리과정들이 상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Heesacker & Bradley, 1997; Wester, Vogel, Pressly, & Heesacker, 2002). 예를 들어, 게슈탈트 치료나 내담자중심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상담의 근본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비록 내담자로 하여금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상담과정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는 않지만 이들을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처럼 상담에서 감정의 경험과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연구가 상담심리학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판되는 상담교재들의 단 6%만이 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연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Heesacker & Bradley, 1997), 이런 교재들 역시 감정에 관한 일반론적인(generalist) 토의에 머물고 있어 인간 정서에 관한 교육과 훈련들이 부족한 실정이다(Heesacker & Bradley, 1997). 또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연구들이 심리학의 다른 분야(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온 반면, 심리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감정의 경험과 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상담심리학분야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담자의 정서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상담자들에게 인간정서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균형 있는 견해를 가질 수 없게 하며, 더 나아가 정서표현에 대한 무지와 편견들로 인해 오히려 내담자에게 해

(害)를 끼칠 수도 있게 한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이뤄지는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대한 교육과 연구들이 체계적이고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서표현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편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담심리학내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화가치와 감정표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더 나아가 상담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분야의 학자들은, 인간본성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들이 개인을 독립적이고, 자족적(self-contained)이며, 자율적인(autonomous) 존재로 바라보는 서구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일 문화적(monocultural) 접근으로 인해 자아뿐만 아니라 정서표현과 관련된 제반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제한돼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인간의 감정은 문화적 산물이며 사회적 맥락을 통해 형성되고, 감정의 적절한 경험과 표현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Markus & Kitayama, 1991; Lutz & Abu-Lughod, 1990). 예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의 감정은 자아개념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독특성(uniqu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이라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4).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내적 특성들을 중시하는 감정들, 예를 들어 화, 자부심, 좌절감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능숙해 질 것을 요구받는데,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을 분석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반면, 동양의 상호의존적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능력, 특성들을 표현

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타인들과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상호의존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사회관계 속의 한 일원으로 바라보며, 관계 속에 있는 타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들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hurch, 1987; Yang, 1981). 따라서, 자아는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수행하려하며, 타인들의 기대와 욕구를 기초로 해서 행동하려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가치에 영향을 받는 자아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행동의 기초로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Potter(1988)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의 감정경험과 표현은 사회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사회적 관습의 형성이나 지속과도 무관하다. 즉,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특히 개인의 내적 특성들을 강조하는 감정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배치되어 갈등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 대신, 개인의 감정은 타인들의 반응을 고려함으로써 형성되고 지배되는 경향이 강한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족내의 평화와 조화를 해치는 감정들을 억누르고 감추도록 사회화되고, 결국 감정표현을 자제하는 성격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Leong, 1992; Uba, 1994).

상이한 문화간의 심리적 차이를 사회심리학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나라 심리학계에서도 최근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최상진, 최수향, 1990; 조공호, 1992; 한규석, 1992). 특히 최상진(1991, 1994)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들을 기술하는 한국말 속의 심리적 개념들, 즉 情, 恨, 평계, 눈치, 우리, 체면 등을 문화심리학적 시각에서 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해 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아개념은 서양의 개별화(individuation), 자율성(autonomy), 독립성(independence) 등을 속성으로 하는 자타 분리적 자기구조와는 다르며, 개별화보다는 탈개별화, 자율성과 독립성보다는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자타관계에서 특히 내집단관계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일면 한국인의 특성을 집단주의적 혹은 관계주의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기존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진은 이에 더 나아가 한국인이 가지 있게 여기는 자아개념은 서구적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자기자신감, 능력감, 효능감, 성취감 등과 같은 능력 속성적 자기측면보다는 인격성, 덕성 등과 같은 품성도야적 측면의 자기와 더불어 지위, 권력과 같은 사회적 평가측면의 자기구조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자아는 자기개성화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사회가치 추구적이라는 점에서 개인간의 차이보다는 이상적 사회성자기(ideal social self)를 개인적 이상자기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자아개념과 관련해서, 최상진(1994)은 한국인들의 심정주의가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현적으로 표출된 타인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킨 상대방의 동기나 심정을 읽는데 매우 민감한데, 행동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의도나 마음씨를 어떻게 추론하느냐의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인상형성과, 감정의 경험 및 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상진(1994)은 한국인의 심정주의적 정서적 특성을 ‘情’과 ‘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情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기본적 심리문법의 원형으로, 恨은 한국인의 정서 및 성격체계의 원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심정심리적 지식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설득이론, 상담이론, 심리치료 및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는 한국인의 심정심리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론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상진, 1994).

문화적 관습과 규범들이 구성원들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광범위하고 세밀한 영향들을 미친다는 주장은 심리학의 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상담심리학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몇 세기에 걸쳐 상담심리학내에서도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화가치와 일치하는 상담기법들을 습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Sue와 Suc(1999)는 내담자의 문화가치, 상담자의 문화가치, 그리고 상담과정에 내재된 가치들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상담의 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Kim, Atkinson, 및 Umemoto(2001)는 문화가치와 감정표현에 관련된 상담심리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동양의 문화가치에 충실한 내담자일수록 감정의 경험과 표현을 강조하는 상담기법보다는 내담자의 생각(thought)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인지적(cognitive) 상담기법을 선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인지적 상담기법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감정을 자제하여 자기 조절과 절제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동양의 문화가치와 부합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서, 동양의 문화가치에 충실한 아시아계 미국인 내담자들은 진로문제를 다루는 상담장면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를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Kim, Li, & Liang, 2002). 이러한 결과는 동양문화와 감정표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주

장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Kim 등(2002)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과 해석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재해석하기에 앞서, 다양한 상담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Kim 등(2002)이 밝힌 연구결과가 다른 종류의 상담장면과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Kim 등(2002)이 행한 연구가 진로상담을 주제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내담자의 결혼문제를 다루는 개인상담을 주제로 하여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동양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와 내담자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정서적 기법 대 인지적 기법)간의 관계를 한국의 대학생들과 개인상담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치와 상담기법 외에 성격유형(personality type)과 상담경험을 연구의 변인으로 채택하여 그들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우선, 본 연구가 내담자의 다른 측면 즉 인지적 사고 혹은 정서를 강조하는 서로 다른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성격유형(사고유형 혹은 감정유형)이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참여자들의 성격유형이 상담기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보고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유형(thinking type)의 사람들은 감정유형(feeling type)의 사람들에 비해 합리적-정서적 치료(RET)를 사용한 상담자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Stoltenberg, Pace, & Maddux, 1986). 또한,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성격유형에 어울리는 상담기법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치료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Erickson,

1993). 즉, 사고형의 상담자들은 인지적 치료기법 즉 행동치료, 합리적-정서적 치료, 현실치료 등을 자신들의 주요 상담기법으로 채택하는 반면, 감정형의 상담자들은 정서적 상담기법 즉 게쉬탈트, 내담자 중심 치료 등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과거 상담경험 여부가 본 연구의 한 변인으로 채택되어 그 영향을 통제하였는데, 이는 상담경험 여부가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Lagana, 1995; Lucas, 2002; Solberg, Ritsma, Davis, Tata, & Jolly, 1994; Yoo, 1997), 내담자가 제기하는 상담문제유형(Tracey, Leong, & Glidden, 1986), 그리고 상담기법에 대한 선호도(서영석, 2003; Hensley, Cashen, & Lewis, 1985)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와 성격유형 그리고 상담경험 여부가 서로 다른 측면(사고 혹은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n=28$)과 서울에 소재한 국립대학($n=27$)과 사립대학($n=38$)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과목을 수강중인 93명(여성 57명, 남성 36명)의 학생들(대학생 65명, 대학원생 2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9세에서 52세까지 분포하였고($M=27.63$, $SD=9.70$), 이 중 27명(29%)이 기혼자였다. 참여자들 중 39명(42%)의 학생들이 과거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중 21명(23%), 15명(15%),

16명(17%), 13명(14%), 1명(1%)의 학생(들)이 각각 진로상담, 학업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결혼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자아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SCS)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아시아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아개념척도(Self-construal Scale: Singelis, 1994)의 하위척도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를 사용하였다. 아시아문화권에서 생활하고 그러한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자 하며, 관련된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타인들의 기대와 요구에 기초하여 행동하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Markus & Kitayama, 1991; Shweder & LeVine, 1984; Triandis, 1989),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는 사람들이 타인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예,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상호의존성을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척도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의 Cronbach alpha가 .71에서 .74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Singelis, 1994;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Yamada & Singelis, 199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0이었다.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의 타당도는 타민족간 비교연구와 집단주의적 의사전달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확립되었다(Singelis, 1994;

Singelis & Brown, 1995). 본 연구에서는 Seo(2002)가 역번역과정(back-translation)을 통해 그의 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한국어판 상호의존적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Myers-Briggs Type Indicator(Form M)

연구 참여자들의 성격유형(personality type)은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Myers, McCaulley, Quenk, & Hammer, 1998)의 Thinking/Feeling 하위 척도(이하 TF)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TF척도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이성적,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value)에 근거하는지를 평가한다. 즉, 사고유형(Thinking type)은 객관성, 분석적 능력, 비판적 판단, 그리고 정의(justice)와 공정성에 기초해 사물을 판단하는 반면, 감정유형(Feeling type)은 이해(appreciation)와 공감(empathy), 조화(harmony)에 대한 욕구,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와 배려(concern)를 기초로 사물을 판단한다고 여겨진다. TF척도는 사고/감정적 기능들이 양극단의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두 개의 유형 중 어떤 유형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F척도는 최신판 MBTI Form M(Myers, McCaulley, Quenk, & Hammer, 1998)에 수록된 것으로 총 2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에 발행된 MBTI 안내서(Myers et al., 1998)에 따르면 TF의 내적 신뢰도는 .86부터 .93까지 분포하였고, 한 개인이 두 개의 유형 중 동일한 유형으로 드러날 비율을 조사한 검사-재검사(test-retest) 연구들은 TF척도의 신뢰도가 .45에서 .89사이에 분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F척도(Form M) 역시, Seo(2002)가 역번역과정(back-translation)을 통해 그의 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TF척도를 사용하였다.

상담대본(counseling scripts)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담기법(인지적 기법, 정의적 기법)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Seo(2002)가 개발한 두 개의 상담대본을 사용하였다. 우선, 인지적 대본(cognitive script)에서 상담자는 주로 인지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상담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해결방안들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격려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선영 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을 떠나야만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선 참고 묵인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선영 씨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지는 않을까요?.....저라면, 그런 가능성을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부모님께 가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음으로써 내담자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 상황에 매몰되기보다는 택할 수 있는 행동의 대안들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정의적 대본(emotive script)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내면에 존재할 수도 있는 화(anger)나 좌절감(frustration)과 같은 감정들을 탐구하고 표현하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계속 그 감정상태를 유지하세요. 선영 씨의 그 꼭 쥐 주먹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선영 씨의 그 감정을 가능한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대본 모두 29개의 내담자 반응과 30개의 상담자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7개의 내담자, 상담자 반응까지는 두 대본이 동일하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서로 다른 경험(사고 혹은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나머지 내담자반응들은 달라진다. 두 대본 모두 동일한 상담회기(두 번째 만남)에 동일한 내담자의 문제(매 맞는 30대 주부)

를 다루고 있으며, 상담자의 성별과 연령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Seo(2002)는 상담대본을 개발하면서 미네소타대학에 재학중인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13명의 대학원 학생들(여성 7명, 남성 6명; 미국계 백인 6명, 아시아계 외국인 6명, 미국계 흑인 1명)에게 두 개의 상담대본을 읽게 한 후, 두 대본 중 어느 것이 인지적, 정의적 대본인지를 구별하게 하고, 정의적 대본의 경우 상담자가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감정의 종류들을 열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의도한 대로 두 종류의 대본들을 구별하였고, 정의적 대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확인하였다: 화(anger; $n=13$, 100%), 두려움(fear; $n=7$, 54%), 좌절감(frustration; $n=6$, 46%), 실망감(disappointment; $n=6$, 46%), 슬픔(sadness; $n=5$, 38%), 혼란스러움(confusion; $n=5$, 38%), 증오(hatred; $n=5$, 38%), 원한(resentment; $n=2$, 15%), 무력감(helplessness; $n=2$, 15%), 절망감(despair; $n=1$, 8%). 본 연구는 Seo가 역번역과정을 통해 만든 한국어판 대본들을 사용하였다.

상담양식평가척도(Counseling Style Evaluation Form: CSEF)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호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양식평가척도(Counseling Style Evaluation Form; Seo, 2002)를 사용하였다. CSEF는 일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CSEF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네 문항은 대본 속의 상담자가 얼마나 진지했으며(sincerity), 내담자의 문제를 얼마나 이해했고(understanding),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helpfulness), 그리고 과연 상담기법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effectiveness)를 묻

는다. 반면, 나머지 세 문항은 만일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본 속의 상담자와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그 상담자가 얼마나 편하고(comfort), 도움이 되며(future helpfulness), 또한 얼마나 그 상담자와 상담할 의향이 있는 지(willing to work)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이외에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에 대한 이유 또한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는데, 우선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담당 교수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간략히 소개하고 연구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공지함으로써 실험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우편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혀온 학생들에게는 두 개의 상담대본 중 무작위로 정해진 한 개의 상담대본이 실려있는 설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후 참여자들은 먼저 개인의 신상 및 상담경험의 유무를 묻는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후에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 MBTI Thinking/Feeling scale 순서로 설문에 응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상담사례가 실린 대본을 읽은 후 상담양식의 선호도를 상담양식평가척도를 이용해 평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저장한 후 다시 전자우편으로 연구자에게 회송하였다.

연구 참여의사를 밝혀온 총 104명의 학생들 중 93명(89%)이 완성된 설문지를 회송하였고, 이 중 44명(여성 28명, 남성 16명)이 인지적 대본이 실린 설문지를, 나머지 49명(여성 29명, 남

성 20명)이 정의적 대본이 실린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결 과

상관분석(correlational analysis)

주요 연구문제에 대한 통계분석에 앞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연령, 성별, 혼인여부)과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들)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인 참여자들의 연령과 혼인여부가 주요분석에서 공변인(covariate)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MANCOVA

종속변인, 즉 CSEF의 7개 문항들이 서로 유의하고도 큰 상관관계(.53 - .83)를 보임으로써, $2 \times 2 \times 2$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MANCOVA)를 사용하여 Wilks's lambda(λ)를 기준으로 주요분석

을 실시하였다. 상담기법(인지적 기법, 정의적 기법), 성격유형, 상담경험의 유무가 요인(factor)으로, CSEF의 일곱 문항들이 종속변인으로, 참여자들의 연령과 혼인여부 외에 연속변인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가 공변인으로 각각 처리되었다. 또한,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와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항목들이 지정되어 그 효과들을 알아보았다. MANCOVA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주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담경험과 상담대본간의 상호작용효과와 상담경험, 상담대본,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개의 상호작용효과 중 상위인 삼자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는데, 공변량분석 결과 7개의 종속변인들 중 1개의 변인(미래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대본에 나온 상담자와 상담을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future helpfulness), $F(1, 75) = 5.69, p < .05$)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 변인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1. 성별	-						
2. 연령	-.16	-					
3. 혼인	-.17	.79**	-				
4. 성격유형	.06	.11	.08	-			
5. 상담경험	.05	-.04	.08	.18	-		
6. 대본유형	-.05	.17	.23*	.02	.06	-	
7. SCS-T	-.10	.40**	.27**	.10	.03	.14	-

주. SCS-T =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interdependent self-construal).

상관분석 시, 여성, 기혼자, 감정적 성격유형, 상담 유경험자, 정의적 상담대본을 1로 부호화 하였다.

* $p < .05$ ** $p < .01$.

표 2. MANCOVA 결과 요약 표

Source	λ	Hypo. <i>df</i>	Error <i>df</i>	<i>F</i>
상담대본(A)	.92	7	69	0.90
상담경험(B)	.90	7	69	1.09
성격유형(C)	.88	7	69	1.32
SCS-T(D)	.84	7	69	1.95
A × B	.80	7	69	2.41*
A × C	.90	7	69	1.07
A × D	.90	7	69	1.10
B × C	.86	7	69	1.59
B × D	.90	7	69	1.11
C × D	.88	7	69	1.35
A × B × C	.89	7	69	1.17
A × B × D	.80	7	69	2.50*
A × C × D	.89	7	69	1.21
B × C × D	.88	7	69	1.40
A × B × C × D	.89	7	69	1.25

주. SCS-T =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p < .05$.

삼자간 상호작용효과는 상담대본과 상호의존적 성향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상담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상담경험의 유무에 따라 그림 1과 그림 2로 나누어 가시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종속변인과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척도 점수들이 상담대본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시되었고, 각 점수들의 분포에 대한 회귀선(regression line)이 덧붙여졌다. 우선 그림 1은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의 경우 두 가지 대본 모두에서 상호의존적 성향과 종속변인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참여자들일수록 대본상의 상담자가 미래에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그림 1은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그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에 상관

없이 인지적 상담기법을 사용한 상담자보다는 정의적 상담기법을 사용한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과거에 상담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담유경험자들의 경우 상호의존적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적 상담기법을 사용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는 반면, 인지적 상담기법을 취한 상담자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낮아졌다.

질적 자료분석(Analysis of qualitative data)

미래 상담 도움기대치(future helpfulness)에 대한 통계분석 외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한 자료를 기초로 질적 분석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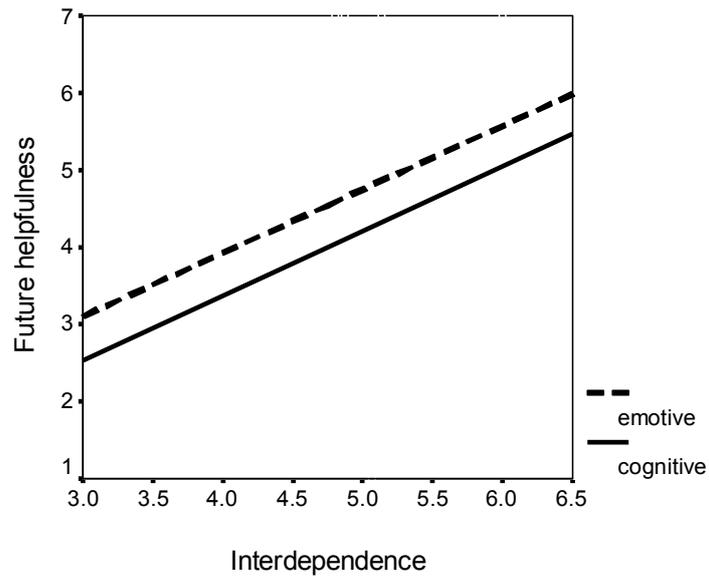


그림 1. 상담 무경험자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에 따른 상담자의 미래 도움 평가치
emotive=정의적 상담대본; cognitive=인지적 상담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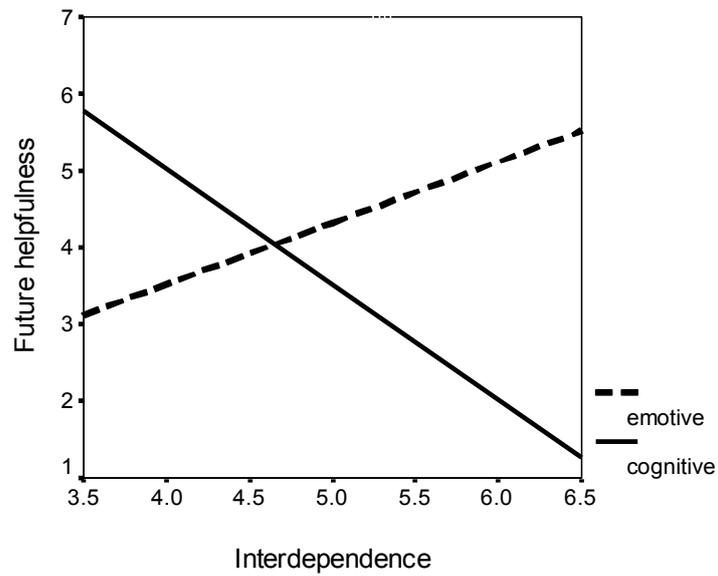


그림 2. 상담 유경험자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에 따른 상담자의 미래 도움 평가치
emotive=정의적 상담대본; cognitive=인지적 상담대본.

하였다. 약 91%(n=85)의 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기술하였는데, 상담경험 여부와 상담대본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상담 무(無)경험자

인지적 상담기법: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인지적 상담기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우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잘 경청하고 있고 내담자를 편하게 해주고 있으며,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담자가 “형식적”이고 “사무적”이며 내담자를 유도심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더욱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과 해결책을 능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여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의적 상담기법: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정의적 상담기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소수의 참여자들이 감정표현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참여자들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유도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표현할 수 없었던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내담자의 갈등,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내담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 마음도 동일시해 줄 것 같아 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이 상담자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담자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평상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민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이 상담의 전반적인 흐름과 상담자의 대인기법(relationship technique), 상담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내재된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도록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담자 속에 내재된 감정을 확인시키고 표현하도록 돕고 있다”, “화가 날 때나 우울할 때 믿을 수 있는 제 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직접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적으로라도 분출을 하게 됨으로써 웬지 마음이 풀릴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으면, 감정의 응어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말해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자연스럽게 찾아낸다면 불편하게 느꼈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이 창피하고 불쾌할 것 같다”와 같이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감정표현을 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감정을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정의적 상담대본에서 표현된 감정들(예를 들어 화)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완전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담 유(有)경험자

상담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이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에 근거해 상담기법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담행위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표현했다면, 상담 유경험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상담경험, 특히 상담자와의 관계,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상담효과에 근거해 구체적인 평가(evaluation)의 이유들을 기술하고 있었다.

인지적 상담기법: 반응의 내용들은 대체로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의 그 것과 비슷했다. 특이한 점은, 상담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인지적 상담기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면, 상담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참여자들로 양극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여자들은,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문제를 말로 표현해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상담이 필요할 때 “위의 상담자와 상담을 한다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떤 상담이든 상담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래에 상담을 받을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반응한 참여자들은, 상담자에게서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으며 내담자의 문제를 “성의껏” “심각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현실을 외면할 방안만 강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지 않다고 기술하였다.

정의적 상담기법: 상담경험이 있는 참여자들 대부분은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긍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 “내담자가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감정)을 상담자가 이끌어 주는 것이 상담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담자의 감정을 상상을 통해 표현해 보도록 하는 부분이 신선했다”, “내재된 감정을 이끌어내고 표현하는 과정이 힘이 들고 또한 그러한 감정을 상담장면에서 지속하는 것이 힘이 들겠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잘 이끌어 내 주는 듯해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소수의 참여자들은, 대본에 나온 상담기법의 어색함과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회의(懷疑) 등의 구체적인 이유들을 기술하였다: “가상의 현실을 통해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내 마음속의 감정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확신을 할 수 없다”, “내가 대본의 내담자라고 했을 때, 배개를 주고 남편에 대한 미움을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머뭇거리면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유도해 내어 그 것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

는 것이 옳을 수도 있으나 내담자의 감정을 표출시킴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상황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내담자가 감정을 표출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관건인데 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아시아문화가치(상호의존성)에 대한 충실도와 성격유형 그리고 상담경험이 내담자의 서로 다른 경험(사고 혹은 감정)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상담경험에 따라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의 경우,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대본상의 상담자가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상담기법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변인과 상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보고들(유성경, 유정이, 2000; Tata & Leong, 199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집단주의적(collectivist)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신뢰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상담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서영석(2003)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독립적 성향이 강하고 상호의존적 성향이 약한 사람들보다는 상호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제 삼자에게 자신의 문

제를 드러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며, 이것은 일정한 정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요구되는 상담의 기본 속성과도 일치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담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상호의존성에 상관없이 인지적 상담기법보다는 정의적 상담기법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상담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에 따라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즉, 상호의존성이 강한 참여자일수록 내담자로 하여금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도록 강조한 상담자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내담자의 사고와 문제해결의 대안을 강조한 상담자에 대해선 낮은 평가를 내렸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상호의존적 성향 즉 아시아문화가치를 수용하는 정도가 강한 참여자일수록 인지적 상담기법보다는 내담자의 감정표현을 강조하는 정의적 상담기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수의 참여자들이 상담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경험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며 또한 과연 그런 행위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상담장면에서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상담행위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2)의 연구결과, 즉 동양문화가치에 충실한 아시아계 미국인 내담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하도록 강조한 상담자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 상담자를 문화적으로 더 유능하다고 평가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이것은, 진로상담의 맥락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언어진 Kim 등(2002)의 연구결과가 개인상담의 맥락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재현(replicate)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감정의 종류에 대한 언급 없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인지적 vs 정의적)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비교한 Kim 등(2002)의 연구결과가, 아시아인들이 표현하기를 자제한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감정들(화, 분노, 실망, 좌절)을 대상으로 한 금번 연구에서 재현되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아시아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대한 기존의 상담이론과 상반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은, 아시아인들은 과묵하고 감정표현을 꺼리기 때문에 (Leong, 1992; Uba, 1994), 상담장면에서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가치에 대치되는 행위이며(Kim, Atkinson, & Umemoto, 2001), 이것은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상담서비스를 덜 이용하게 하고 또한 상담을 조기 종결토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해왔다(Sue & Sue, 1999). 그러나, 본 연구와 Kim 등(2002)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아시아문화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사고보다는 정서표현을 강조한 상담기법을 더 선호하였다. 비록 Kim 등(2002)이 기존의 이론과 주장에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설계상의 한계점을 들어 기존의 이론들에 대한 재해석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아시아문화가치와 상담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론들이 최소한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과 상반되는 금번 연구결과와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까지 사회, 문화심리학계에서 행해진 한

국인의 자아개념과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결과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상담주제와 관련해서, 한국인의 심정주의 특히 한과 관련된 최상진의 주장은 결과해석의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최상진(1991)은 恨을 가장 한국적인 한국인의 심성특질로 규정하였는데, 상대의 부당한 가해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을 그 심리적 기저로 하고 있으며, 억울함, 분함, 서러움, 슬픔, 체념 등의 정서적 특성들을 내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의 감정은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혹은 예술이나 놀이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풀 수 있다. 이러한 한의 정서적 특성과 해결방안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문제와 결부되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온 내담자의 문제를 담고있는 상담대본을 읽었는데, 이 때 한국인에게 보편적인 한의 심리적, 정서적 표상체계가 발동되어 내담자의 문제와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들은 대본 속의 내담자가 제기하는 상담문제를 읽고 내담자가 억울함, 분함, 원망, 답답함, 무기력, 서러움, 슬픔, 체념 등과 같은 한의 감정들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한의 정서적 특성을 담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는 내담자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대안을 강조하는 인지적 상담기법보다는, 내담자의 내재적 감정을 공감적으로 수용하고 내담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한 정의적 상담기법이 내담자에게 더 정서적인 유대감과 만족을 주었다고 평가하였을 수 있다. 내담

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현실대안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인지적 상담기법이 일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보도록 유도하는 정의적 상담기법이 관계 지향적이고 간접적 암시법 등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화가치와 정서표현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상담심리학 이론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주장(assertion)과 가설(hypothesis)의 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아시아문화가치와 정서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들이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들이 평소 경험하고 표현하기를 자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들을 상담장면에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감정의 경험과 표현에 관련된 아시아적 문화가치가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문화가치를 수용하는 내담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아시아 문화가치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따라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기를 자제하지만, 본인들의 은밀한 문제를 다루는 상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내재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아시아적 문화가치와 상담의 관계를 논하는 기존의 이론과 연구결

과들은 특정한 집단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일본과 중국에 거주하는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론과 주장들이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 가정되는 사람들도 그들이 처한 심리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에 따라 정서표현에 대한 사고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 내 차이(within-group-difference)를 인정하는 최근 상담심리학계의 기초를 다시금 강조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상담에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상담분야에서 진단, 목표, 및 전략이 한국적 가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장성숙, 2000)는 기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적으로 다른 세 개의 대학에서 표본을 추출했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본 연구가 실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내담자로서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직접 경험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서로 다른 경험을 강조하는 상담대본을 읽고 선호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상담대본에 나타난 모의상담사례의 내용이 매맞는 중년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타인의 감정과 상황들을 고려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적 성향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상담주제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특정한 감정들을 유추하게끔 해서 내담자의 억

눌렀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상담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번 연구결과가 실제 상담장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문제를 가진 실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기법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Seo(2002)가 개발한 상담대본을 사용하였는데, 이 상담대본들의 내용과 지향하는 상담기법에 대한 타당도는 미국의 상담 대학원생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대본들이 한국인들에게 좀 더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상담기법이 한국의 상담 대학원생들이나 전문 상담가들에게도 인지적 기법과 정의적 기법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서영석 (2003).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상담장면에 서의 감정표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4(2), 329-345.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장성숙 (2000). 현실역동 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조근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59-81.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39-350.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 7집*, 313-337.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9.
- 한규석 (1992).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Church, A. T. (1987). Personality research in a non-Western culture: The Philippin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272-292.
- Erickson, D. B.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preferred counseling model.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7, 39-41.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7).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 Heesacker, M., & Bradley, M. M. (1997). Beyond feelings: Psychotherapy and emotion. *Counseling Psychologist*, 25, 201-219.
- Hensley, R. A., Cashen, V. M., & Lewis, M. L. (1985). The effect of previous experience on preference of approach for effective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119, 293-296.
- Kim, B. S. K., & Atkin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9, 570-603.
- Kim, B. S. K., Li, L. C., & Liang, C. T. H. (2002). Effects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49, 342-354.
- Lagana, L. (1996). Older adults expectations about mental health counseling: A multivariate and discrimina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0, 297-316.
- Leong, F. T. (1992). Guidelines for minimizing premature termination among Asian American client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7, 218-228.
- Lucas, G. A. (2002). *Coping style, need for counseling, an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sychological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Lutz, C., & Abu-Lughod, L. (1990).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1998).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Potter, S. H. (1988).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emotion in rural Chinese social life. *Ethos*, 16, 181-208.
- Seo, Y.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emotional expression in counse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hweder, R. A., & Levine, R. A. (Eds.) (1984).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 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 240-275.
- Solberg, V. S., Ritsma, S., Davis, B. J., Tata, S. P., & Jolly, A. (1994). Asian-American students severity of problems and willingness to seek help fro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Role of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75-279.
- Stoltenberg, C. D., Pace, T., & Maddux, J. E. (1986). Cognitive style and counselor credibility: Effects on client endorsement of rational emotive therap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37-243.
- Sue, D. W., & Sue, D. (199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Wiley.
- Tata, S. P., & Leong, F. T. L.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87.

- Tracey, T. J., Leong, F. T., & Glidden, C. (1986). Help seeking and problem perception among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31-336.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and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285-3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Uba, L.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Wester, S. R., Vogel, D. L., Pressly, P. K., & Heesacker, M. (2002). Sex differences in emo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30, 630-652.
- Yamada, A-M., & Singelis, T. M. (1999). Biculturalism and self-constru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 697-709.
-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170.
- Yoo, S.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원 고 접 수 일 : 2003.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14

게 재 결 정 일 : 2003. 9. 5

Effects of Adherence to Cultural Values, Personality Type, and Counseling Experience on Perceptions of Counseling Approaches that Emphasize Different Client Expression

Young-Seok Seo

University of Minnesota

Chang-Yil Ah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one's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personality type and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affect his or her perceptions of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Ninety-three Korean college students read one of the two counseling scripts in which counselor emphasized expression of the client thoughts or emotions, and they rated the counselor in terms of counselor credibility and their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counselor in the future. It was revealed that those without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perceived the counselor who emphasized expression of the client emotions as more helpful for their own concerns in the future, as compared to the counselor who emphasized expression of the client thoughts.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their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the higher their ratings to the counselor. On the other hand, for those with previous counseling experience, the higher the degree of their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 the higher their ratings to the counselor who emphasized expression of client emotions, but the lower their ratings to the counselor who emphasized expression of client thoughts. In spite of several limitations such as small sample size and analogue desig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have important suggestions for revising counseling theo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ian cultural values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also for taking within-group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 in conducting cross-cultural counseling research and providing counseling services to the culturally different.

Key Words : cultural values, counseling experience, emotional expression